



## 미 증시, 고용지표 호조, 파월의장 발언 소화하며 혼조세

### 미국 증시 리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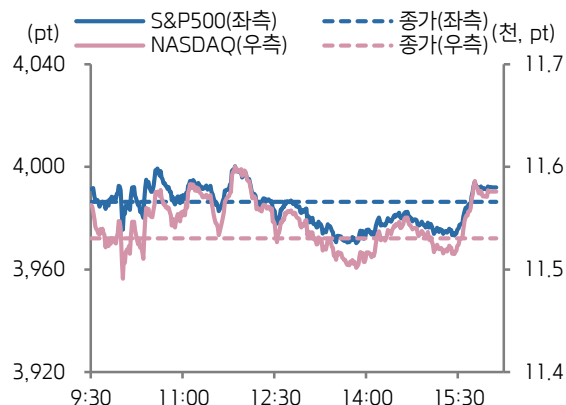
8일(수) 미국 증시는 ADP 민간고용, JOLT 구인이직보고서의 고용 데이터 호조에도, 10일 비농업부문 고용 지표를 확인하자는 대기심리와 파월의장의 하원 청문회 발언을 덜 매파적으로 해석한 영향에 힘입어 혼조세 마감 (다우 -0.18%, S&P500 +0.14%, 나스닥 +0.4%)

파월 의장은 전날 상원 청문회에 이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"3월 회의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"고 언급하며 3월 FOMC 50bp 인상 가능성은 완화. "결정된 것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전체 경제 지표를 볼 때 더 빠른 긴축이 필요하다는 점이 나타나면 우리는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가 될 것"이라고 언급, 향후 고용과 물가지표를 보고 결정할 것임을 강조. 전날과 마찬가지로 금리 정점 전망치를 올려야 할 상황이고, 필요할 경우 빅스텝을 밟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.

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월 JOLTS 구인이직건수는 1082.4 만건(예상 1054.6 만건, 전월 1123.4 만건) 기록,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으나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 수준인 700 만건을 큰 폭으로 웃돌고 1월 실업자수 대비 구인 중인 일자리 수는 여전히 1.9로 높은 수준을 유지. 세부적으로는 운송과 창고 등에서 9.4만건 증가한 반면, 건설 -24만 건, 레저·접객 -19.4만건, 금융 -15.1만건 등 감소세. 또한 2월 ADP 민간 고용자수는 24.2만명(예상 22.5만명, 전월 11.9만명) 증가 기록하며 예상치 상회. 제조업 부문에서 5.2만명, 서비스업 부문에서 19만명 증가, 특히 레저와 접객 부문에서 8.3만명 증가하며 서비스업 인플레이션 우려는 가중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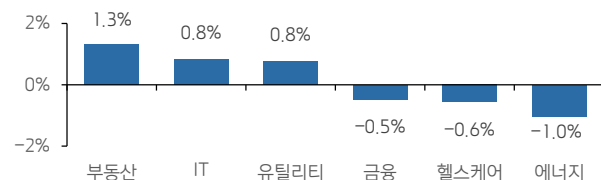
업종별로 부동산(+1.3%), IT(+0.8%), 유틸리티(+0.8%) 업종은 강세, 에너지(-1%), 헬스케어(-0.6%), 금융(-0.5%) 업종은 약세.뱅크오브아메리카에서 온세미컨덕터(5.59%)가 테슬라, 메르세데스벤츠 등의 전기차 업체와의 계약에 이어 BMW 전기차 부문과 장기 공급계약을 맺었고 자동차용 반도체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근거로 투자 의견을 상향한 영향으로 상승. 엔비디아(3.83%), 마이크론(2.39%), AMD(3.97%) 등 반도체 관련주들 및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등.

### S&P500 & NASDAQ 일종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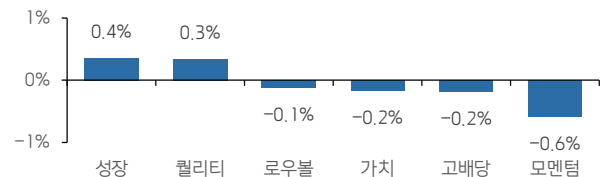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###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###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## 주요 지수

주식시장			외환시장		
지수	가격	변화	지수	가격	변화
코스피	2,431.91	-1.28%	USD/KRW	1,321.32	+1.66%
코스피 200	315.38	-1.38%	달러 지수	105.70	+0.08%
코스닥	813.95	-0.22%	EUR/USD	1.05	+0.01%
코스닥 150	1,188.23	+0.19%	USD/CNH	6.97	+0%
S&P500	3,992.01	+0.14%	USD/JPY	137.36	+0%
NASDAQ	11,576.00	+0.4%	채권시장		
다우	32,798.40	-0.18%	국고채 3년	3.850	+12.7bp
VIX	19.11	-2.45%	국고채 10년	3.712	+6bp
러셀 2000	1,879.48	+0.04%	미국 국채 2년	5.070	+6.2bp
필라. 반도체	3,041.39	+2.67%	미국 국채 10년	3.991	+2.8bp
다우 운송	14,866.41	+0.54%	미국 국채 30년	3.894	+2.2bp
유럽, ETFs			원자재 시장		
Eurostoxx50	4,288.45	+0.22%	WTI	76.48	-1.42%
MSCI 전세계 지수	632.88	-1.34%	브렌트유	82.49	-0.96%
MSCI DM 지수	2,724.80	-1.44%	금	1818.1	-0.1%
MSCI EM 지수	988.38	-0.54%	은	19.99	-0.32%
MSCI 한국 ETF	59.19	+0.27%	구리	404.3	+1.42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

##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	MSCI 한국 지수 ETF 는 +0.27% 상승, MSCI 신흥국 ETF 는 +0.41% 상승. 유렉스 야간선물은 0.1% 상승. NDF 달러/원 환율 1 개월물은 1314.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7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.
주요 체크 사항	1. 연속적인 매파 발언을 쏟아낸 파월 의장의 발언에도 위험선호심리 회복 가능성 2. 미국 반도체주 강세가 국내 관련주들의 반등 탄력에 미치는 영향 3. 2차전지 및 엔터주들의 주가 및 수급 변동성 확대 여부

##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지난 7 일 상원에 이어 8 일 하원 청문회에서 파월 의장은 1) 빠른 긴축 필요 시 인상 속도 높일 가능성, 2) 인플레이 안정을 위한 제한적인 통화정책 유지, 3) 3 월 22 일 최종 금리 전망치 상향 가능성(기존 5.25%) 등을 언급하면서 매파적인 입장을 피력한 모습.

파월 의장의 연속적인 매파 발언으로 인해 7일 69%대(6일 29%대)였던 3월 FOMC 50bp 인상 확률은 8일 77%대까지 재차 높아지는 등 금융시장은 3 월 FOMC 결과를 놓고 각자의 전망들을 재 점검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보임. 외신들 사이에서도 연준이 금리인상 사이클 후반부에 인상 속도를 재차 가속화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이거나(Market Watch), 어차피 10 일 고용지표를 보고 파월 의장은 또 말을 바꿀 것(Bloomberg)이라고 언급하는 등 파월 의장의 발언은 여러측면에서 시장에 혼란을 제공했던 것으로 판단.

하지만 전일 미국 증시가 장 후반 들어 낙폭을 축소하면서 반등에 성공한 점을 미루어보아, 주식시장에서는 일련의 가격 조정을 통해 FOMC 불확실성을 소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. 매파 성향을 강화한 파월 의장이었지만, “3 월 인상 수준 정해진 바가 없으며, 고용보고서, CPI 및 PPI 등 인플레이 지표를 모두 확인할 필요”가 있다고 언급했다는 점도 일말의 안도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.

이날 발표된 2 월 ADP 민간고용(24.2 만건, 컨센 20.5 만건)은 호조세를 보이면서 고용시장을 중심으로 한 미국 경제의 견조함을 확인 시켜준 것은 맞음. 그러나 연준의 경기 판단 보고서인 베이지북에서 a) 불확실성으로 수개월 간 경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, b) 일부 연준 관할 지역에서 임금 상승 압력이 완화됐다고 평가하는 등 파월 의장의 발언보다는 덜 긴축적인 or 덜 매파적인 내용이 담겨있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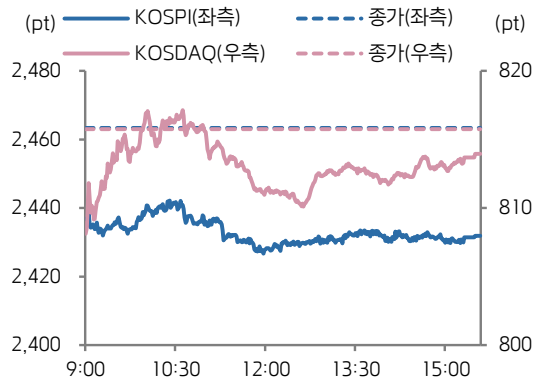
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, 연준 역시 인플레이션 경계감 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서 이들의 정책 결정은 전적으로 데이터 의존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. (현시점에서 시장은 3 월 50bp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있으나) 매번 회의 때 마다 25bp 씩 인상해가면서 인플레이와 고용시장의 변화를 사후 확인하는 정책 경로를 베이스 시나리오로 상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.

전일 국내 코스피는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충격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심리 확산 등으로 급락. 코스닥은 2 차전지주들의 반등 및 바이오주들의 급등세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낙폭이 제한(코스피 -1.3%, 코스닥 -0.2%).

금일에는 연속적인 파월의장의 매파 발언으로 인한 금리 상승 및 달러 강세 부담에도, 전일 미국 증시의 장 막판 상승 전환 성공이 관련 불안을 완화시켜주면서 반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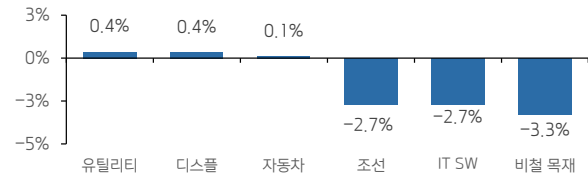
업종 관점에서는 미국 증시에서 AMD(+4.0%), 엔비디아(+3.8%) 등 반도체주들이 AI 시장 확대 기대감 등으로 강세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 시,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포함 AI 등 IT 관련주들 및 여타 종목군들 간 주가 탄력이 상이할 전망. 또한 수급 쏠림 현상, 자본 경쟁 이슈 등으로 최근 단기적으로 대장주로 부상하고 있는 2 차전지, 엔터주들의 주가 및 수급 변동성 확대 여부에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판단.

## KOSPI &amp; KO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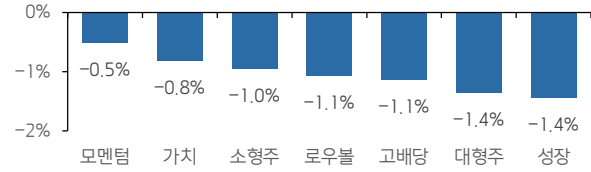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##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##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Quantiwise, Fnguide, 키움증권

## Compliance Notice
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## 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랄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며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